

# 육송 한옥에 거실 벽난로... 고풍스런 삶 만끽



거실에 설치된 벽난로는 안전을 고려해 제철소 고로용 내화벽돌로 만들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 해남읍 두륜산 자락 유 씨의 퓨전 한옥

해남읍에서 대흥사 가는 길을 지나 오소재를 넘어서니 두륜산 자락에 고풍스런 한옥 한채가 눈길을 끈다. '설아다원'이라 쓰인 팻말을 따라 꼬불꼬불한 길을 5분정도 오르면 이 한옥의 마당에 들어설 수 있다. "뒤편 것 있다고 여기까지 오셨소." 어제 본 듯 반겨주는 이가 바로 이 한옥의 주인 유용(70)씨다. 허름한 전통 한복을 입고 검정색 털신발을 신은 모습이 영락없는 시골 어르신이지만, 칠순 노인이라 하기엔 얼굴색이 무척이나 곱다. 한옥에 사는 이유를 묻자 "한옥은 짓는 순간부터 고풍스런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즉답이 돌아왔다. 유씨의 말처럼 고풍스런 한옥 입구에는 50평 규모의 연못이 있고, 10평 남짓한 마

벽난로 용도는 다양하다. 난방은 물론 집안 습기도 없애고, 특히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그 맛이 일품이다. 유씨의 집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거실 난방을 제외하곤 모든 방이 구들로 돼 있다. '구운 풀'이라는 뜻의 우리말인 구들은 열을 저장해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식이다. 뒤편을 둘러보니 유씨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친환경 화장실이 눈에 띈다. 소변과 대변이 각각의 통으로 나뉘 분리되고 사방이 트여있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분뇨는 그대로 주변 호박밭의 자양분으로 활용된다. 유씨는 "우리가 배설한 인분은 흙으로 돌아가 소중한 곡물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섭취된다"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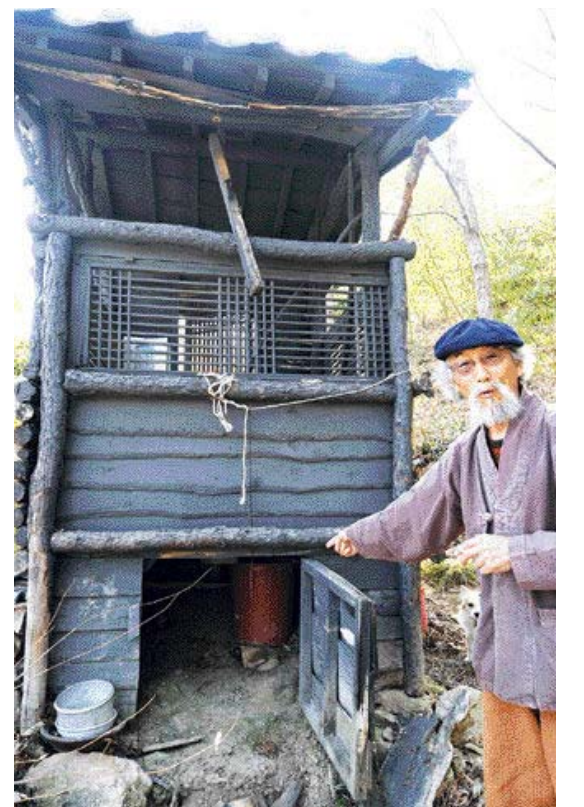
집 입구엔 자그만한 연못·마당엔 야생화  
1만2천평서 녹차 1t 생산 스님들에 판매  
방은 구들 난방 이용·화장실 친환경 설계

당에는 각종 나무와 야생화가 심어져 아늑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대정마루에 앉으니 마당 너머로 푸른 강진담과 드넓은 해남 간척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집 뒷마당은 두륜산이 감싸고 있고, 집 주변은 녹차밭과 갈대숲이 울타리를 대신하고 있다. 일(-)자형 구조로 지어진 유씨의 25평짜리 한옥은 지난 99년 나무와 흙, 돌 등 천연 소재로 지어졌는데, 평당 53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갔다고 한다. 값비싼 국산 육송(陸松)을 주 재료로 썼기 때문이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으로 구성된 이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거실에 벽난로가 있다는 점이다. 벽난로는 장식용이 아니라 진짜 장작을 때는데, 거실로 들어서니 알싸한 장작타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전통 한옥에 서양식 벽난로가 들어서 있는데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벽난로 설치비는 500만원선. 안전을 생각해 제철소 고로를 만드는 내화벽돌로 틀을 짰다.

말했다. 유씨의 전원생활에 대한 철학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에서 일식집을 경영하던 유씨는 지난 97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해남으로 내려와 동지를 틀었다. 평소 꿈이었던 녹차 재배에도 힘을 쏟았다. 집 주변에 경작중인 1만2천평의 녹차 밭에선 친환경 재배로 연간 1t 정도의 녹차가 생산되는데, 품질이 우수해 대부분 스님들에게 주문 판매된다. 자연과 함께 한 한옥생활은 그에게 건강이란 큰 선물도 선사했다. 위장장애를 달고 살았던 유씨는 해남생활 2년만에 모두 완쾌됐고, 덤으로 시력까지 좋아져 이제는 수십년간 써온 안경을 벗고도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유씨는 "한옥 생활은 정신을 맑게 하고 육체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면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체 나이는 50대라고 하더라"며 활짝 웃었다. /해남=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 전남도 제안 아름다운 한옥 만들기

▲외부는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라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 원래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부지를 조성한다. 또 집을 남향에 배치해 자연채광을 충분히 받도록 한다. 외부의 건축자재는 돌, 목재, 황토, 기와 등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지붕 공간에 다락방과 지붕 채광창을 설치하고, 방 설계시 전용 욕실이 갖춰진 손님방(guest room)을 만들면 실내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내부는 전통적 색감을 살려라  
한지로 벽과 천장을 바르면 전통적인 색감이 살아난다. 바닥도 여러 장의 한지로 장판을 한 후 불린 콩을 갈아 들기름에 섞어 바르면 윤기가 나고 오래 간다. 여기에 치자 물을 섞으면 아이들의 맑은 피부색 같은 느낌을 준다. 바깥 창문을 그대로 두고 안쪽에 커튼 대신 창살에 창호지만 바른 미닫이를 덧댄다. 창호지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를 걸러준다. 벽은 전체를 흙벽으로 하면 좋지만, 시멘트로 시공할 경우엔 벽에 황토흙을 바른다. 나무로 된 틀을 짜 벽에 설치한 후 흙을 채워 넣고 한지로 도배를 한다. 방안이 조금 좁아지는 대신 소음도 줄고 집안에서 소리가 메아리치는 것도 사라진다. 흙벽에 기대앉으면 훈훈한 기운이 등에 감돌아 집이 더욱 포근해진다.



유용씨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친환경 화장실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021530-9518